

**최** 근 광고회사 오리콤이 서울에 있는 초·중·고생 9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설문 조사한 적이 있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환경문제(29.5%)를 첫손으로 꼽았다.

"양방계곡에서 정신없이 놀았다. 그때 동생이 비명을 질렀다. 발밑에는 깨진 맥주병이 있었고 주위 물은 온통 빨강계 되었다. 동생은 병원으로 실려가 다섯 바늘을 꿰맸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 때문에 죄없는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이다." -김지희(동두천 탐동초6)

"장봉도 갯벌에 갔다. 갯벌을 휘젓고 다니며 개와 소리를 잡고 진흙 마사지도 했다. 그런데 배가 볼록한 채 죽어있는 물고기가 보였다. 사람들이 버린 비닐봉지들이 염분 때문에 무색으로 변해 마치 말미잘처럼 보이기 때문에 바다생물들이 그것을 먹고 질식해 죽어버린다고 한다. 배를 갈라보면 비닐봉지가 동그랗게 뭉쳐 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윤현아(안양 삼성초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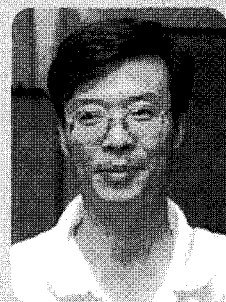
경기도가 지난해 초등학교생들의 방학일기를 모아 최근 출간한 <환경일기>에서 발췌한 내용들이다. 어린 청소년들이 우리 주변의 오염된 환경과 기성세대인 어른들의 비뚤어진 환경의식을 어떻게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른들이 더럽힌 지구의 오염된 환경 때문에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

그러나 이 청소년들이 바로 기성세대가 파괴한 환경을 복원하고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미래의 '환경지킴이' 집단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일찍부터 환경의식을 심어주고 생활화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일은 기성세대의 의무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흔히 환경보호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 일회용품 사용금지, 합성세제 사용금지, 재활용, 자원절약 등의 개념을 떠올리지만 실제 생활에서 기성세대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삼푸에 길들여진 기성세대가 하루아침에 비누로 머리를 감기는 쉽지 않다. 또 물을 물쓰듯이 했던 생활습관에 인이 배인 이에게 하루빨리 허드렛물 사용을 생활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또한 개발논리에 길들여진 기업체에게 이무리 처벌과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단시일에 환경보전 의식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의식과 실천이 어릴 때부터 학교와 생활에서 환경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 환경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환경교육은 선택과목이다. 99년도 기준으로 중학교 2천727곳 가운데 340곳, 고등학교 1천908곳 중 319곳이 환경을 선택해 15%에 그치고 있다. 환경교육이 초·중·고교의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영국 등 선진국과 구별된다.

또 전국적으로 교사 1천100여 명이 환경과목을 맡고 있지만 환경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이 건뎛고 있는 증거다. ☹



전상엽/한겨레신문 민권사회1부 기자

## 조기 환경교육의 필요성